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김 은 하 김 도 연 박 한 솔 김 수 용 김 지 수[†]
아주대학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Belief in a Just World; BJW)은 세상은 정당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해외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BJW를 측정하는 도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BJW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유용성을 인정받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표본 1(대학생 266명)과 연구표본 2(성인 231명)를 대상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하게 4개 하위요인 16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화적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는 한국인에게 사용하기에 타당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4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3~.90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요인구조, 타당화, 신뢰도

[†]교신저자 : 김지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msk3503@gmail.com

최근 한국 사회는 ‘수저계급론’, ‘3포 세대’,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사회적 차별과 기회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Jason, 2015). ‘수저 계급론’이라는 용어는 ‘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개인의 수저, 즉 계급이 결정된다는 뜻이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박탈감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수저 계급론’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층을 묘사하는 ‘3포 세대’와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몇몇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부조리하고 공공성이 실종되었음’이라고 지각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법보다 재력과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순, 2016).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의식과 부당함은 한국인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불평등 의식과 부당함을 반영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해외의 심리학 및 사회학 문헌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이 주목을 받아왔다(Furnham, 2003). BJW는 자신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지각하여 누구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자 인지양식이다(Dzuka & Dalbert, 2002; 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7).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Banaji, & Nosek, 2004)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고 그 세상

을 합리화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인지적 부조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즉,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BJW를 더 강하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의 경우, 세상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낮추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ost & Hunyady, 2005).

BJW를 측정하는 도구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은 Lucas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이다. PDJWBS은 BJW가 개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구분된다는 가정 하에, 이 하위요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4가지 영역(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한다. PDJWBS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Rubin과 Peplau(1973, 1975)의 정당한 세상 척도(Just World Scale)와 Dalbert(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가령, 두 척도 모두 요인구조 분석 및 타당화 검증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신뢰도가 낮아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Furnham, 2003). 또한 여러 연구에서 BJW이라는 개념이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Dalbert, 1999) BJW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Lucas et al.,

2011).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BJW를 측정하는 도구가 자체 개발된 것이 없고 기존에 사용된 척도들은 신뢰도나 타당도 그리고 개념적으로 여러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urnham, 2003). PDJWBS는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검증되었고 BJW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한국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DJWBS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번안 및 타당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DJWBS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에서도 PDJWBS의 4개 하위 요인, 16문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화적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PDJWBS를 개발한 Lucas 등(2007)에 의하면, BJW는 개인적인 믿음(BJW-self), 일반적인 믿음(BJW-others),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라는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BJW는 BJW-self와 BJW-others로 구분되는데, BJW-self는 ‘자신’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자신’은 노력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BJW-Others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다른 사람’은 노력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Lipkus,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BJW-self와 BJW-others는 개인에게 차별적 영향력을 미치는데, 특히 BJW-self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응의 지표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hera, Harvey, & Callan, 2014). 이와 달리, BJW-others는 사회적 태도, 특히 불행한 일(예. 성폭력,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비난하는 경향(예.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Lucas, 2009; Sutton & Douglas, 2005). 이와 같이 BJW-self와 BJW-others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두 하위요인을 구분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Lucas 등(2007)은 BJW라는 개념을 공정성(justice) 문헌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과 결부시켜 정의 및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Adams의 공정성이론(1965)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자신이 받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atfield,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즉, 분배공정성은 결과에 대해 지각하는 공정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과정에 대해 지각하는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은 분배와 절차에 대해 다른 수준의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 & Tyler, 1988; Lucas, 2009).

이러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문헌을 토

대로 PDJWBS는 BJW-self, BJW-others, 분배공정성 그리고 절차공정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4개의 하위요인(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Lucas et al., 2007, 2011). 각각의 하위요인들은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8)과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Social value orientation theory; McClintock, 1978)을 토대로 개념화된다. 먼저,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여러 유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특히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을 토대로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 정체성 그리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기(social selves)' 정체성을 형성한다. Lucas 등(2007)은 개인적 자기정체성은 BJW-self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자기정체성은 BJW-others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타

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친자기적 지향(rosel self orientation;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과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Van Lange, Otten, DeBruin, & Joireman, 1997). 친자기적 지향이 높은 사람은 분배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친사회적 지향이 높은 사람은 절차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cas, 2009; Messick & McClintock, 1968).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Lucas 등(2011)은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지며 결과변수와 차별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은 자신은 자신이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개인적 자기정체성과 친자기적 지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웰빙(예. 우울, 삶의 만족도)을 예측한다. 둘째, 분

표 1. BJWS 하위요인의 특성과 관련 요인

		사회정체성 이론	
		개인적 자기정체성	사회적 자기정체성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	친자기적 지향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
	친사회적 지향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
		개인적 웰빙을 예측함 (예. 낮은 수준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높은 수준의 만족도)	엄격하고 혹독한 사회적 태도를 예측함 (예. 피해자와 외집단에 대한 비난 혹은 평가절하)
		대인관계적 웰빙을 예측함 (예. 사회적지지, 결혼 만족)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를 예측함 (예. 이타주의, 집단주의, 약자에 대한 권리 옹호)

배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은 다른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기정체성과 친자기적 지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엄격하고 혹독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셋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은 자신이 받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기정체성과 친사회적 지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웰빙(예. 사회적지지, 직장관계 만족도)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기정체성과 친사회적 지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 집단주의,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태도 등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를 예측한다.

이러한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의 특성과 차이점은 Lucas 등(2011)이 실시한 원척도 4요인에 대한 타당화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DJ-self는 개인적 웰빙의 지표인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심리적 문제의 지표인 우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J-others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PJ-self는 대인관계적 웰빙의 지표인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PJ-others는 집단주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이 각각 다른 유형의 적응과 태도를 예측함을 의미하며,

BJW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위요인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의 준거타당도, 즉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 사회적지지, 가난에 대한 태도, 집단주의를 측정하였다.

이 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4개 하위요인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 Lucas, Rudolph, Zhdanova, Barkho와 Widner(2014)의 연구에 따르면, DJ-others가 높은 사람이 이민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지 않고 이민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또한 Lucas, Young, Zhdanova와 Alexander(2010)는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이 용서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PJ-self와 DJ-self는 용서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DJ-others는 용서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DJ-self와 DJ-others와 PJ-self와 PJ-others는 다른 유형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특히 분배공정성은 긍정 정서를 높이지만 절차공정성은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ucas, 2009; Lucas et al., 2011). 분배공정성이 긍정 정서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만족스러운 결과(예. 보상)가 행복이나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절차공정성은 부정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면, 분노, 좌절,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Lucas et al., 2011).

한편, 문화에 따라 BJW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주목한 비교 문화 연구들도 실시되었다. 특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BJW 수준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는데, 가령, Fischer와 Smith(2006) 그리고 Lind, Tyler와 Huo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절차공정성이 덜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할수록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위계적 문화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Lucas et al., 2011). 또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BJW-others가 개인의 사회적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BJW-others가 사회적 태도와 더불어 심리적 건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u, Wang, Zhou, Wang, & Zhang, 2009; Wu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문화에 따라 BJW-others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Lucas, Kamble, Wu, Zhdanova, 그리고 Wendorf(2016)는 PDJWBS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4개의 요인 구조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PDJWBS를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의 샘플에서 동일한 4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4개의 하위요인 중 DJ-self가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J-self, DJ-others, PJ-self 그리고 PJ-others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모든 국가의 샘플에서 BJW-self 점수가 BJW-others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인도와 중국 참여자의 BJW-others 점수가 미국과 캐나다 참여자의 BJW-others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에 대해 Lucas 등(2016)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한 PDJWBS를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The Korea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K-BJWS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BJW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BJWS는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내담자의 경우 K-BJWS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BJW가 낮은지 탐색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본 1과 표본 2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후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참가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연구표본 1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및 전공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총 266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03세($SD=2.09$),

남성이 85명(32.0%), 여성이 178명(66.9%)이었다. 전공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47명(17.7%), 인문계열 35명(13.2%), 경상.사회계열 113명(42.5%), 의학.자연계열 71명(26.7%)이었다.

연구표본 1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표본 2는 연구자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원 평생교육원, 교회, 취업 모 및 육아 사이트 등의 협조를 얻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¹⁾. 총 26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총 23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표본 2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6세($SD=10.89$)로, 남성이 171명(74.0%), 여성이 60명(26.0%)이었다. 또한 미혼자가 108명(46.8%), 기혼자가 118명(51.1%),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사람은 4명(1.7%), 사별은 1명(4%)이었으며, 학력은 초.중학교 졸업자가 2명(.9%), 고졸이 39명(16.9%), 대졸은 112명(48.5%), 대학원 재학 중 혹은 졸업은 77명(32.7%)이었다. 연구표본 2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BJWS)와 더불어 K-BJWS의 수렴 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Lucas 등(2011)이 영어판 원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측정된 우울, 사회적지지, 가난에 대한 태도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Lucas 등(2011)이 타당화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평적 집단주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K-BJWS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Lucas 등(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은 총 16개의 문항, 4개의 하위요인(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인 믿음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배공정성은 노력과 기여의 대가로 받은 보상(즉, 결과)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만 절차공정성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절차(즉, 과정)가 공정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은 다른 사람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은 자신이 받은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수단 혹은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은 다른 사람이 받은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수단 혹은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은 각각 4문항, 7점 척도로 평정하며(1=그렇지

1) 연구 표본 2의 일부 자료는 2016년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사용되었음.

않다, 7=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Lucas 등(200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85,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90,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91,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Todd Lucas로부터 PDJWBS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세 차례의 번안 및 수정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를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한인 1.5세대)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번역된 척도와 원척도를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Dalbert(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

K-BJW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와 김혜림(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K-BJW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점구, 최상진, 그리고 양병창(200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4개의 하위요인(우울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긍정 정서, 대인 관계적 우울 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극히 드물게(1일 이하), 3=거의 대부분(5~7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점구 등(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척도

K-BJW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윤혜정(1993)과 이현진(2009)이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 4개의 하위요인(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현진(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가난에 대한 태도 척도

K-BJW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therton 등(1993)이 개발하고 권현수(2013)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가난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Poverty Scale)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 3개의 하위요인(개인적 결함 요인, 구조주의적 요인, 하위문화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 중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하위문화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태도(예. “나는 빈곤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어려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빈곤해지는 것은 선택이다”)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현수(2013)의 연구에서 하위문화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

K-BJW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가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한국어로 번안 및 수정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 4개의 하위요인(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중 Lucas 등(2011)이 PJ-others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이타주의 태도와 평등 의식을 반영하는 수평적 집단주의(평등성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교류를 하는 성향)만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유혜진(2013)의 연구에서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K-BJWS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K-BJWS와 Dalbert(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BJWS와 우울, 사회적지지, 가난에 대한 태도,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3명의 임상 및 상담 전문가를 통해 문화적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연구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를 살펴본 결과, KMO 측도는 .87, Bartlett의 구형성 지표는 $\chi^2=2448.255(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양병화, 1998). 다음으로, Mardia's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축 요인 분석 그리고 사각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과 scree plot을 살

해보았는데, 그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4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scree plot에서도 5번째 요인 이후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원척도의 하위요인이 4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공통분(communality)의 경우 최소값이 .39로 모든 문항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분의 최소값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vens, 2002).

다음으로, 요인 수를 4개로 고정하고 주축 요인 분석과 사각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4요인 구조의 누적 설명 변량은 62.76%였고, 모든 문항이 원척도와 동일한 하위요인에 적재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32이상을 보인 문항이 없어(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어떤 문항도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전체 점수와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의 경우도 Ware, Harris, Gandek, Rogers 그리고 Rees(1997)가 제

시한 .4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55\sim.81$).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원척도와 동일하게 한국어판 BJWS도 4요인의 16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원척도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belief for the self; DJ-self)’ 요인의 4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98로 전체 변량의 37.37%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원척도의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Belief for self; PJ-self)’ 요인의 4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한 요인 명을 유지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27로 전체 변량의 14.21%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원척도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belief for others; DJ-others)’ 요인의 4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유지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97로 전체 변량의 6.04%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 또한 원척도의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Belief for others; PJ-others)’ 요인의 4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한 요인 명을 사용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82로 전체 변량의 5.14%를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척도의 개발논문에서 제시된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과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부하량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16문항 중 14개 문항은 요인부하량의 절대적인 크기가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요인 내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요인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순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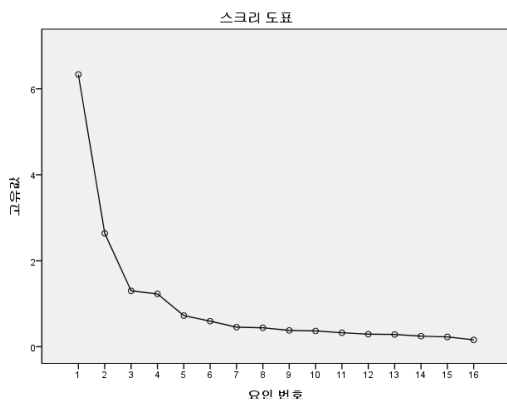


그림 1. K-BJWS 16문항의 Scree plot

표 2. K-BJW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66)

문항	요인				b ²	요인별 문항- 전체상관
	1	2	3	4		
DJ-self						
1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18	.48	.09	-.17	.39	.54
2 나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03	.82	-.03	.00	.66	.72
3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05	.73	-.02	.00	.53	.64
4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01	.82	-.03	.01	.68	.71
PJ-self						
1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04	-.08	-.01	.66	.41	.55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04	.02	.03	.79	.65	.71
3 나는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07	.10	-.12	.71	.64	.72
4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00	.12	-.02	.73	.65	.73
DJ-others						
1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79	-.05	.01	-.06	.64	.75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86	-.00	.02	-.06	.76	.81
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82	.05	-.02	.03	.68	.76
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75	-.00	-.16	.07	.69	.77
PJ-others						
1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02	-.04	.76	-.14	.64	.73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03	.00	.84	-.05	.71	.77
3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04	.00	.77	.02	.64	.74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16	.10	.71	.09	.66	.73
eigenvalue	5.98	2.27	.97	.82		
설명변량(%)	37.37	14.21	6.04	5.14		

주. DJ-self=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PJ-self=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DJ-others=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PJ-others=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났다. 또한 나머지 2개 문항의 경우 요인부하량의 절대적인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요인 내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 문항들의 내적구조는 원 척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표본 2의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하위요인 16문항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chi^2=226.531$ ($p < .001$), CFI=.951, TLI=.940, RMSEA=.08,

SRMR=.05로 나타났다. Hu와 Bentler(1998)에 의하면, CFI, TL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SRMR의 경우 .08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11). 본 연구의 결과, CFI와 TLI는 .95을 넘거나 근접하고, RMSEA는 .05 ~ .08에 해당하며 SRMR은 .08이하이기 때문에 한국어판 BJWS의 4요인 구조는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7~.89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N=231)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4요인 모형	226.53***	98	.95	.94	.0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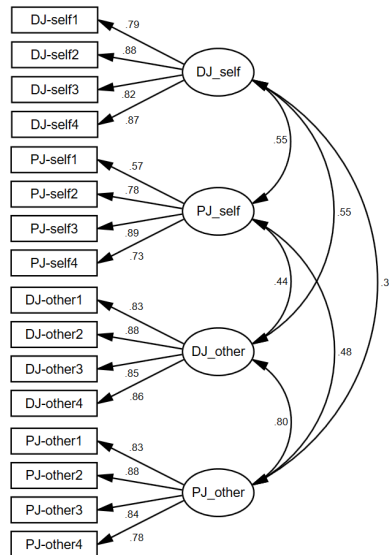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주.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계수임)

타당도 분석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서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BJWS)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척도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K-BJWS의 하위요인 DJ-self 및 PJ-self와 PBJWS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K-BJWS의 DJ-self와 PJ-self는 PBJWS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음으로,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BJWS의 각 하위요인들과 준거변인들(우울, 사회적지지, 가난에 대한 태도, 수평적 집단주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우울이 DJ-self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가 PJ-self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난에 대한 태도는 DJ-others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수평적 집단주의는 PJ-self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이론(Lucas et al., 2007)과 경험적 연

구결과(Lucas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BJWS의 총점은 Dalbert(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지지 및 수평적 집단주의와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JWS의 16문항과 4요인이 우리나라 문화에도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적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타당도를 평정한 평정자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상담 심리 전문가,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임상 심리 전문가, 대학 상담 센터의 상담 심리 전문가로 총 3인이었다. 이들에게 K-BJWS에 대해 설명하고, 번역된 문항과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BJW를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5점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2점 이하)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은 '약간 적절함'과 '매우 적절함' 사이인 4.41로 나타났고, 2점 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K-BJWS의 4요인에 대한 문화적 적절성에 대해서도 평균 4.53으로, 4요인 모두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표 4. 수렴 및 준거타당도 분석 결과 (N=266)

	DJ-self	PJ-self	DJ-others	PJ-others	K-BJWS
Dalbert(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54 ^{***}	.61 ^{***}	.31 ^{***}	.33 ^{***}	.59 ^{***}
우울	-.36 ^{***}	-.32 ^{***}	-.19 ^{**}	-.17 ^{**}	-.31 ^{***}
사회적지지	.39 ^{***}	.43 ^{***}	.14 [*]	.16 ^{**}	.36 ^{***}
가난에 대한 태도	-.04	.02	.14 [*]	.12 [*]	.09
수평적 집단주의	.25 ^{***}	.31 ^{***}	.22 ^{***}	.26 ^{***}	.34 ^{***}

주. * $p < .05$, ** $p < .01$, *** $p < .001$.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대, 학력, 결혼여부에 따라 K-BJW 척도의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성별($t=-1.22$, $p=n.s.$), 연령대($F=1.61$, $p=n.s.$), 학력($F=.15$, $p=n.s.$), 결혼여부($t=-1.00$, $p=n.s.$)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성별, 연령대, 학력,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신뢰도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각 요인 별로 살펴보면, DJ-self는 .83, PJ-self .84, DJ-others .90, PJ-others .88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는 .90으로 나타났다.

논 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지난 몇 십 년간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Dalbert, 2001). 또한 BJW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이 중 Lucas 등(2007)이 개발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믿음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는 기존 BJW의 개념을 확장하여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측

정한다. 최근 한국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 그리고 불공정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JW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요인의 BJW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학문적·임상적으로 유용한 검사 도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의 BJW 지표와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DJWBS가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 번역 과정을 거쳐 PDJWBS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BJWS)를 대학생과 성인들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JWS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고,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화적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BJWS의 4개 하위요인, 16문항에 대한 요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32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이 없었고,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요인의 내용과 문항 구성도도 원척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는데, 즉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캐나다, 인도 표본에서도 동일한 4요인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Lucas 등(2016)의 연구와 일

맥상통하는 결과로, Lucas 등(2007)이 제안한 BJWS의 4요인(DJ-self, DJ-others, PJ-self, PJ-others)이 문화적 보편성을 가지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둘째,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BJWS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온 Dalbert (1999)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BJWS)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BJWS는 BJWS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적인 BJWS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K-BJWS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상관분석 결과, PBJWS의 총점은 K-BJWS의 총점과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r=.59$)을 보였고, K-BJWS의 DJ-self와 PJ-self와도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r=.54\sim.61$)을 보였다. 이는 PBJWS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결과이며 K-BJWS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self)과 일반적인 믿음(BJWS-others)의 차별적 영향력(Khera et al., 2014; Lipkus et al., 1996; Sutton & Douglas, 2005)이 밝혀진 만큼, BJWS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믿음만을 측정하는 PBJWS 보다는 K-BJWS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K-BJWS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웰빙의 지표인 우울은 DJ-self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에 대인관계적 웰빙의 지표인 사회적 지지는 PJ-self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Lucas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BJWS-self가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분배공정성은 개인적 웰빙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대인관계적

웰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BJWS-self가 분배에 관한 것인지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BJWS를 통해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PJ-self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우울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즉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중시되고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성향이 대인관계적 웰빙 뿐만 아니라 개인적 웰빙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Lucas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PJ-self가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우울과도 관계가 높은 것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Lucas 등(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J-others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S-others 중 분배공정성과 관련한 믿음이 엄격하고 혹독한 사회적 태도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Khera et al., 2014; Lipkus et al.,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차별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기존에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Dalbert(1999)의 PBJWS보다는 여러 유형의 BJWS를 측정하는 K-BJWS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한국판 BJWS와 준거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PJ-others가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Lucas 등(2011)과 달리, 모든 BJWS의 하위요인이 수평적 집단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평적 집단주의 특성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고 '동지애(companionship)'를 느끼기 때문에(Singelis et al., 1995)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과 타인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BJW-self와 BJW-others 모두 수평적 집단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나와 너의 구분보다는 '우리'라는 인식이 확대된 한국 문화권에서는(박현경, 이영희, 2004)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PJ-self와 PJ-others가 각각 DJ-self와 DJ-others에 비해 수평적 집단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드시 Lucas 등(2011)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에 비해 수평적 집단주의와 관련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절차공정성이 개인의 친사회적 성향을 반영한다는 Lucas 등(200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K-BJWS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다차원적으로 BJW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BJW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참여자 표집과정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파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집단에 대해 타당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BJW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김은하 등, 2016), 사회경제적 지위 표본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준거타당도를 보기 위해 K-BJWS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심리적 문제의 부재가 항상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엄나연, 김은하, 2016)와 최근 심리장애의 증상 완화가 아닌 행복감,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두는 긍정심리상담(Seligman, Rashid, & Parks, 2006)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BJW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Lucas와 동료들(2011)의 가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가 PJ-others와 더불어 다른 하위요인보다도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타주의나 약자에 대한 권리 옹호와 같은 다른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의 지표를 측정하여, 문화에 따른 PJ-others의 차별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BJW에 주목해 왔다(Lucas et al., 2016). 하지만 최근 한국인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김은하 등, 2016),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분배 혹은 절차에 대한 믿음이 각각 개인의 웰빙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보다 세분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정보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영문판 PDJWBS를 한국

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Lucas 등(201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PDJWBS의 4개 하위요인인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샘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념들이 문화 동질성을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문화에 따른 BJW와 BJW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BJWS는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상담자는 K-BJWS의 4요인을 토대로 내담자가 어떤 영역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BJW-self가 낮은 경우,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지적 패턴이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내담자가 분배공정성을 낮게 지각한다면, 우울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반면에 내담자가 절차공정성을 낮게 지각한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이에 대한 개입으로는, 김은하 등(2016)이 제안한 바와 같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낮은 공정성으로 야기되는 억울함, 분노, 무기력감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외재적 보상과 더불어 관계적 보상(예.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나 내재적 보상(예. 흥미, 삶의 의미)을 경험함으로써 BJW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인지적 접근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반해, BJW-others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가 외집단(예.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자신에 대한 분배공정성은 낮은 수준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분배공정성은 사회적 약자(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예. 편견, 평가절하)를 야기할 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겠다. 내담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상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상담 전문가들은 내담자의 부정적 태도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예. 대인관계 문제) 이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MacLeod, 2014). 특히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태도가 내담자에게 가지는 의미 등을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태도를 수정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K-BJWS를 상담 현장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내담자의 낮은 BJW를 무조건 비합리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BJW가 약해진 이유를 수용 및 공감하고 내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내담자의 문제를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Mackintosh et al., 2014). 둘째, K-BJWS는

아직까지 한국의 일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BJW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cutoff) 점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나 연구자는 K-BJWS의 점수를 평가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BJW를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K-BJWS를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각 문항이 응답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즉 개인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문항인지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믿음인지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4개의 하위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Lucas et al., 2016).

참고문헌

- 권현수 (2013). 한국어판 빈곤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영남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4), 257-282.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수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5), 1-15.
-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5(3), 42-70.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71-596.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엄나연, 김은하 (2016).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산학기술학회지*, 17(5), 619-630.
- 유명순 (2016). 사회정신 불건강의 조건과 맥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학회 세미나.
- 유혜진 (201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 게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267-299). New York: Academic Press.

- Atherton, C. R., Gemmel, R. J., Haagenstad, S., Holt, D. J., Jensen, L. A., O'Hara, D. F., & Rehner, T. A. (1993). Measuring attitudes toward poverty: A new scale.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9(4), 28-30.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zuka, J., & Dalbert, C. (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About the belief in a just world's impa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Fischer, R., & Smith, P. B. (2006). Who cares about justice? The moderating effect of values on the link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work behavior. *Applied Psychology*, 55(4), 541-562.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tfield, E., Walster, E. H.,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 Hu, L. T., & Bend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18-919.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Jason, L. (2015, October 2). Psychology of Hell Joseon. The Korean Times. Retrieved from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6/01/352_187869.html
-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Lind, E. A., Tyler, T. R., & Huo, Y. J. (1997). Procedural context and culture: Variation in the antecedents of procedural justice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67-780.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666-677.
- Lucas, T. (2009). Justifying outcomes versus process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as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Current Psychology, 28*(4), 249-265.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Kamble, S. V., Wu, M. S., Zhdanova, L., & Wendorf, C. A. (2016).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or self and others: Measurement invariance and links to life satisfaction in four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2), 234-248.
- Lucas, T., Rudolph, C., Zhdanova, L., Barkho, E., & Weidner, N. (2014). 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collective angst, and support for exclusion of immigrants. *Political Psychology, 35*(6), 775-793.
- Lucas, T., Young, J. D., Zhdanova, L. & Alexander, S. (2010). Self and other justice beliefs, impulsivity, rumination, and forgiveness: Justice Beliefs can both prevent and promote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8), 851-856.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Mackintosh, M., Morland, L. A., Kloezeman, K., Greene, C. J., Rosen, C. S., Elhai, J. D., et al. (2014). Predictors of anger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10), 905-913.
- MacLeod, B. P. (2014, January 24). *Addressing clients' prejudices in counseling. Counseling Today*. Retrieved from <http://ct.counseling.org/2014/01/addressing-clients-prejudices-in-counseling/>
- McClintock, C. G. (1978). Social values: Their definition, measurement, and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2*(1), 121-137.
- Messick, D. M., &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e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2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ubin, Z., & Peplau, L. A. (1973).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action to another's lot: A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draft lottery. *Journal of Social Issues, 29*(4), 73-93.
-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Science, 31*(3), 65-89.
- Seligman, M. E.,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788.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tevens, J.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tton, R., & Douglas, K. (2005). Justice for all, or just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637-645.
- Tajfel, H. (Ed.)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Van Lange, P. A., Otten, W., DeBruin, E. M., & Joireman, J. A. (1997). Development of prosocial,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orientations: Theory and preliminar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33-746.
- Ware, J. E., Harris, W. J., Gandek, B., Rogers, B. W., & Reese, P. R. (1997). *MAP-for windows: Multitrait/multi-item program-revised user's guide*. Boston, VA: Health Assessment Lab.
- Wu, M. S., Sutton, M. R., Yan, X., Zhou, C., Chen, Y., & Han, B. (2013). Time frame and justice motive: Future perspective moderates the adaptive function of 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PLoS ONE*, 8(11), e80668.
- Wu, S. T., Wang, L., Zhou, M. J., Wang, W. Z., & Zhang, J. X. (2009). Belief in a just world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ing disaster sites with normal areas. *Advances in Psychological Science*, 17(3), 579-587.

원 고 접 수 일 : 2017. 01.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5. 03

게재결정일 : 2017. 07. 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Eunha Kim Doyoun Kim Hansol Park Suyong Kim Jisu Kim

Ajou University

Belief in a just world (BJW), that the world is just and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has been studied as a cognitive factor and predictor for mental health and social attitudes. As no valid scale measuring BJW exis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 a scale currently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to measure BJW. Two samples, one with 266 college students and another with 231 adults were use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analyses resulted in 16 items and 4 factors, identical to the original scale. The tests of converge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cross-cultural validity revealed strong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reliabilities of the four factors were .83 ~ .90.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factor analysis, validity, reliability*